

올 주요건설사업 47건 대구건설본부 조기시행

시립미술관등상반기시작

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8일 올해 주요 건설사업 47건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, 환경정화 및 하천시설 사업, 체육시설 사업 등에는 모두 2천600억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대구시립미술관(수성구)과 팔공로~공항교간 도로 등 9개 신규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.

대구경북디자인센터(사업비 348억원)는 지상 12층 지하 4층, 연면적 1만9천여㎡ 규모로 착공 4년 만인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.

또 수영장을 갖춘 달서구 이곡 국민체육센터(사업비 50억원)는 지상 2층 지하 1층, 연면적 2천300여㎡ 규모로 오는 4월에, 이곡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(사업비 11억원)은 가로 109m, 세

로 72m 규모로 연말에 각각 모습을 드러낸다.

동구 파계로-경북 칠곡군 사이 길이 3.1km의 팔공산 순환도로 확장사업(사업비 203억원)은 착공 10년만인 오는 5월 마무리된다.

이와함께 235억원의 예산을 투입, 진행 중인 달서구 명곡택지-본리택지 도로(길이 0.8km, 폭 30m)는 5월에, 길이 2.81km 폭 25-50m의 달성군 달성2차공단 경계도로(사업비 389억원)는 10월에 각각 공사가 끝난다.

대구시립미술관(사업비 669억원)은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, 2009년 12월까지 지상 3층 지하 1층, 연면적 2만여㎡ 규모로 건립된다.

팔공로-공항교 도로(사업비 742억원)와 회원유원지-월배차량기지 도로(사업비 319억원), 현풍하수종말처리장(사업비 756억원) 등도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.

이재춘기자 leejc@idaegu.com